

“초등생 폭력 막자” 심리치료 ‘스쿨닥터’ 배치 추진

■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초등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유해정보차단 SW 보급도 늘려 초등생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2.0%로 중·고생보다 훨씬 높아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체포놀이’를 빙자한 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초등생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 상담을 전담하는 정신과 의사인 ‘스쿨닥터’(학교의사의 배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현재 17개 교육청 가운데 제주시교육청만 올해부터 스쿨닥터 2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스쿨닥터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간호사·상담사·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이뤄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치료를 한다.

스쿨닥터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전 단원고에도 배치됐다. 스쿨닥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발달장애 초등생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친구 등 타인과 관계형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로 심리적 치료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초등생 폭력

에 대한 보건·상담 및 담임교사의 상담 및 생활지도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해 담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최대 1점(연 0.1점) 부여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문제에서 책임감이 큰 담임교사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내년에 전문상담교사 증원의 70%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교육청 평가시 전문상담인력의 확대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모든 10~12세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1대1 교사 멘토링도 시행된다.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정서행동발달 문제의 개념과 대처방법 등의 내용이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에 스마트폰 및 컴퓨터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관리하고 중독의심학생을 치료하

는 사이버안심존은 올해 165개교에서 내년 2000개로 크게 증가한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3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경험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은 2.0%로 중학교(0.7%)나 고등학교(0.4%)보다 훨씬 높았다.

초·중·고생의 피해응답률 평균은 1.0%로 지난해 상반기 조사 때 1.4%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살펴보면 정신적 폭력의 비중이 크다.

학생 1000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이 6.8건으로 가장 많고 집단따돌림(3.6건), 스토킹(2.6건), 신체폭행(2.4건), 사이버 괴롭힘(1.9건), 금품갈취(1.5건), 강제성 부름(0.9건), 강제추행(0.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찾아가는 기부 캠페인’

한천 직원 85명과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의료 사각지대 아동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기부 캠페인’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 중인 ‘찾아가는 기부 캠페인’은 바쁜 직장인들이 새끼 사랑나눔 실천 등록을 원할 경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속 직원들이 직

접 회사를 찾아가 등록 등을 돕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등록을 마친 회원은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아동들을 도우면 된다. 올 들어 이날 현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찾아가는 기부 캠페인’에 등록된 한천 광주전남지역본부 직원 수는 모두 85명. 이들은 도움이 절실한 아동들을 위한 기부활동 및 새끼 사랑나눔 실천 캠페인 등을 하게 된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제)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이광수 미카엘 이사장)는 지난 10일 광주시 남구 서동 건립부지에서 내외빈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란데 빌딩’(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제)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제공

서동 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 착공식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12월 준공 목표

재단법인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이광수 미카엘 이사장)는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건립부지에서 그란데 빌딩(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착공식에는 성모승천수도회 백호 신부의 전례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국회의원, 최영호 남구청장, 김점기 남구의회위원장 및 남구의회 의원, 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 김기락 센터장을 비롯 지역 어르신 및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총 공사비 22억2900만원(정부 출연금 12억3600만원 포함)을 들여 대지면적 1.039㎡ 부지에 연면적 1.496.74㎡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설을 보면 지하 1층 ~ 지상 1층은 노인복지센터로 주·단기보호, 방문요양·목욕,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복지사업,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을 수행하고, 지상 2층은 정신장애인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소외된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하며 심신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수도회의 카리즘인 환대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자원봉사자들과 가족들이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북구, 보성 녹차밭서 ‘장애인 가족동반 여름캠프’

광주시 북구는 오는 15일 보성 녹차밭과 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가족간 사랑지수를높이기 위해 장애인 가족 동반자 여름캠프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북구가 주최하고 (사)퇴육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평소 나들이가 쉽지 않은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야외로 나감으로써 장애극복 의지를 고취하고, 아울러 장애인 가족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충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보성 녹차밭 산책 후 울포해수욕장으로 이동해 시원한 물놀이로 진행됐다.

특히 자원봉사자들과 가족들이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협동심과 대인관계를 익혀가는 시간도 함께 갖는다.

또한 가족들 간 말 못할 고충과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간 마음의 짐도 나눌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장애인들의 경우 무엇보다 바깥 나들이를 통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그 가족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사회적 관심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는 편견을 허물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체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기혼자 80% “부모와 함께 살기 편리한 주거시설 부족”

“정부 공급 활성화 정책 필요”

기혼자 대다수는 부모와 함께 살기에 편리한 주거시설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육부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생존한 기혼남녀 1천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서 드러났다.

응답자의 79.8%는 현재 우리나라에 부모와 함께 살기에 편리한 주거시설이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매우 불충분하

다’는 의견도 32.7%에 달했다.

현재 부모와 함께 사는 응답자의 76.3%는 인근에 더 편리한 주거시설이 공급되면 주거지를 옮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76%는 정부가 부모와 함께 살기에 편리한 주거시설의 공급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추가 의견을 수렴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주거정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남구, 치매 예방 ‘은빛행복교실’ 운영

광주시 남구는 다음달 1일부터 ‘은빛 행복교실’이라는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한다.

은빛 행복교실은 11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구청 5층 보건교육실에서 열리며 참가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 80명이다.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선 이달 14일까지 남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607-4365)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은빛 행복교실 참가자들은 음악치료와 생활제조 등이 어우러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노래를 곁들인 인지 능력 향상 훈련, 생활 제조 운동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

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남구는 치매 예방 교실 외에도 무료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검사를 상시 무료로 하고 있다. 치매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참가자들을 관철해 치매 예방 교실 참여 후 신체 기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알려 줄 예정”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을 배워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단위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4면유리, 전망좋은, 광고효과 최고!

- 금호동 서광병원 맞은편 사거리 코너
- 7층중 7층 120평, 구 벽스 Bar 자리 레스토랑/노래홀등 모든업종 오픈 가능
- 매매-6억 3천만원(대출 3억 6천만원 포함) 60평 분할 매매-3억 3천만원
- 임대-보 1억에 월 300만원 60평 분할 임대-보 5천에 월 170만원

주인직매 H.010-3605-5000

■ 19평 - 2013년 신축, 광전파크 빌라 5층 중 5층, 전망좋은, 베란다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매매-1억(8월 20일 한) (시세/분양가-1억 3000만원 정도)

★ 경매 낙찰금액과 비슷 ★

빌라 "급매"

■ 34평 - 2013년 신축, 광전파크 빌라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대출 1억 1천만원 안고 매매-1억 6000만원(8월 20일 한) (시세/분양가-1억 9천만원 정도)

주인직매 H.010-3605-5000

담양·관광 특구

펜션, 전원주택단지, 박물관 등 적합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구 송학랜드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관광시설 자금 유치 가능
- 귀농/귀촌 전남지역 제1순위 지역 주위, 전원주택단지/무인텔등 개발중!
- 추가 형질변경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 30억원
- 매매 - 협의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년후 20억이상 대출 가능

주인직매 H.010-3605-5000